

(주) 리싸이텍코리아



- 대표이사 : 이 봉 철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면 화덕리 106-1
- 전 화 : 041-568-1240
- 팩 스 : 041-568-1242
- 설립일자 : 2001. 8. 16.
- 주생산품목 : Aluminium/Copper Granule
- 자본금 : 2,186백만원

창업 그리고 1년

지난 8월 16일이 창립 1주년이 된 (주)리싸이텍코리아 대표이사 이봉철 사장은 LG니꼬 동계련(舊 LG금속) 출신이다. 회사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이 될 정도로 12년 동안 승승장구하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과감히 중소기업체로 뛰어든 것은 비철금속산업의 고부가가치성, 특히 1차 생산이 아닌 폐자원을 재활용한 2차 생산이 창출해내는 높은 부가가치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환경 중시 정책의 실시 등 오랜 기간동안 비철금속 시장과 관련 산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친환경적이면서도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제조업)이 나라와 사회에도 공헌하는 길이며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길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술임원인 이정주 상무가 LG니꼬 동계련을 떠나 (주)리싸이텍코리아에 뛰어든 것도 오직 이봉철 사장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경영

기획분야에 전문화된 이봉철 사장과는 달리 생산 및 원료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이정주 상무에게 있어서 이봉철 사장은 능력있고, 절친한 동료이면서도 견제의 대상이기도 한 꺾끄러운 존재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철 사장을 따라 과감하게 나선 것은 오랜 기간동안 쌓인 이봉철 사장과의 신뢰때문이었다.

그러한 신뢰는 월 생산량 400톤 달성으로부터 나타났으며 UBC(Used Beverage Can, 폐알루미늄캔)의 재활용뿐 만이 아니라 PCB를 비롯한 각종 전자스크랩의 재활용의 공정기술을 개발하는데 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2002년 4월 UBC와 PCB를 교대로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며(출원번호 10-2002-0019063, 복합물 분리기술을 이용한 폐자원으로 부터의 자원 재생방법) 그 기술을 바탕으로 PCB 및 각종 전자스크랩을 재활용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 중에 많은 직원들이 휴일을 모르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업분야

회사는 비철금속의 재활용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당연히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UBC를 비롯한 폐자원의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회사는 1개의 단일 공장, 1개의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UBC를 재활용하여 Almin(알루미늄 분말)을 생산하여 페로바나듐 업체에 발열제로, 철강업체에서 쓰는 탈산제를 제조하는 업체에 원재료로 공급하는 UBC재활용 사업이고 둘째는 EES(Electric & Electronic Scarps, 전기전자폐기물)를 재활용하여 구리(Cu) 및 각종 유가금속(금, 은, 백금, 팔라듐 등)을 추출하여 LG니꼬 동제련 등 비철금속 제련소에 판매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회사가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회원사로 가입한 것도 두 번째 사업 분야 때문이다.

기존에 폐PCB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의 완벽성에 있다. 기존 업체들은 주로 PCB에 전착되어 있는 금, 백금, 은 등을 용제를 이용한 습식의 방법으로 추출하고는 PCB는 다시 처리를 맡기는 습식업체와 PCB 및 EES를 단순 파쇄하여 LG니꼬 동제련이나 해외의 제련소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가금속의 가치를 만족하게 회수 하지 못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회사의 방식은 PCB의 경우 파쇄에 이어 완전히 분쇄하여 폐기물과 유가금속을 함유한 구리 분말로 완벽하게 분리해 내어 제련소에 판매함으로써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가금속의 가

치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업체 입장에서 보면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거나(유가금속 함유량이 낮은 경우) 보다 높은 가격에 폐기물을 판매할 수 있다(유가금속 함유량이 높은 경우)는 의미이기 때문에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업체에게도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또는 폐기물 처리 경비의 절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PCB 등 EES의 경우 폐기물의 단순 구매 뿐만이 아니라 배출회사와 재활용위탁계약을 맺어 임가공을 통하여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가금속의 가치를 고스란히 배출업체에게 되돌려주는 역할도 계획하고 있어 유가금속의 함유율이 높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염려 끝!

(주)리싸이텍코리아가 더욱 주목받게 되는 것은 회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업모델 때문이다. 회사는 기존에 주력으로 삼았던 UBC재활용에서 PCB 및 전자스크랩 재활용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는데 이는 2003년에 발효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를 겨냥한 것이다.

이미 모든 제조업체들의 관심대상인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생산량의 일정비율이상을 제조업체가 반드시 재활용해야만 하는 제도로 자원의 재활용 제고 및 자연오염을 예방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에게 있어서는 재활용설비를 갖추거나 적법하게 처리해주는 재활용업체에 위탁해야만 하는 등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열악한 재활용 업계의 상황으로 볼 때 재활용센터를 스스로 건립하는 일부 대형가전업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위탁처리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많은 업체들이 PCB 등 전자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해결을 해왔으나 2002년 7월 이후 중국이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중국으로의 반입을 막고 있어 쉬운 해결책이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업체들의 염려를 더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리싸이텍코리아의 등장은 이러한 염려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회사의 핵심기술은 PCB 등 복합물을 파쇄, 분쇄 및 선별 기술을 이용하여 폐기물과 유가금속으로 분류해 내는 것으로 기존에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기술이다.

또한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 UBC나 PCB뿐만 아니라 비철금속과 플라스틱, 비닐 등 어떠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데에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게다가 처리량이 월 1,000톤에서 1,200톤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갖추고 있어 발생하는 전자스크랩의 처리를 고민하고 있는 협회의 많은 회원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미 대기업인 L전자, 중소PC제조업체인 S사 또한 다른 대기업인 S전자 등과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계약을 협의하고 있다.

벤처기업

(주)리싸이텍코리아는 창립 1년에 불과하지만 2001년 매출 22억(5개월), 2002년 상반기 매출 35억을 시현하는 등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철 사장은 매출 및 이익

시현이 계획에 미달한다면 더욱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에의 박차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특허의 출원, 매출의 증대 그리고 벤처기업으로의 인증이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는 지난 7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기술평가를 받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특히 회사는 기술력과 매출의 안정성 그리고 벤처기업인증 등의 결과와 회사를 세계최고의 Urban Mining Company(도시광산이란 의미로 폐기물을 이용한 유가금속의 재활용사업을 말함)로 나아가기 위한 Vision 등을 가지고 몇몇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방향은 있으며 구체적인 배수 및 투자금액 등을 조정하고 있어 곧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보다 적극적인 영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영철학

기업은 절대로 대주주만의 회사는 아니며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구성원들의 가족과 같이 하나가 되어 노력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CEO로서 기업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는 모순 되는 듯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은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실패를 하였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CEO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이다.

그것이 성공을 이루어내기 위한 CEO의 자세이고 성공을 이루어 냈을 때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올바른 자세인 것이다.

기업의 존재목적은 이윤창출이다. 기업은 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어야만 한다. 그 조직은 기업내부의 조직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업외부의 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이익구조를 확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상호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조직',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자율적인 조직'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조직으로 이루어진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으며 그야말로 사회 내에서 기업의 존재 목적을 훌륭히 달성 해낼 수 있는 기업인 것이다.

VISION 2005

회사는 2005년을 바라보고 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회사는 금년과 내년 2003년을 바탕으로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각 사업 분야의 온전한 자리매김! 그것은 (주)리싸이텍코리아의 기술력이 필요한 모든 업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적법하고 온전한 처리를 해내는 국내 최고의 기업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의 최종목표가 아니다.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이루어내는 때는 늦어도 2004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05년에는 어떠한 꿈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이봉철 사장은 2005년은 해외진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의 특성상 국가간 교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기술을 수출하거나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선은 자체 기술력으로 국내의 재활용을 주도하며 보다 발전된 기술력을 가지고 단순히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공장을 건설하여 우리나라의 재활용기술을 수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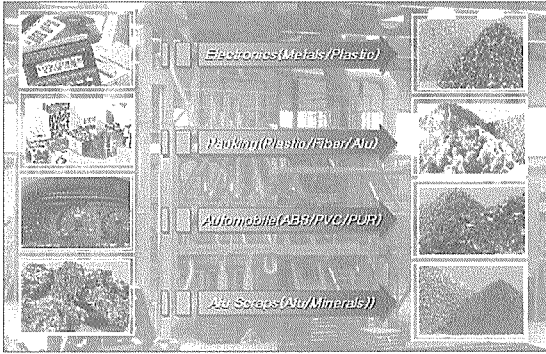
이를 위해 이미 해외의 여러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의 개발을 위해 올해 안에 회사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R&D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02년 한국축구는 세계 4강을 이루어냈다. 2005년 우리는 또 다시 (주)리싸이텍코리아의 세계 4강을 기대해본다.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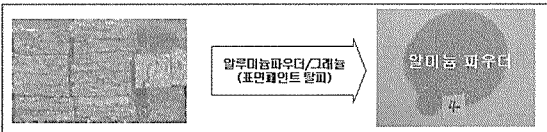
- 2001년 8월 (주)리싸이텍코리아 법인설립 대표이사 이봉철 취임
- 2001년11월 기술제휴선 RESULT A.G.와 기술협력 및 자본제휴 협의
- 2001년12월 매출액 22억 달성(5개월)
- 2002년 4월 특허출원 출원번호 : 10-2002-0019063
'복합물 분리기술을 이용한 폐자원으로부터의 자원 재생방법'
- 2002년 5월 PCB재활용 사업 시작
- 2002년 6월 KPCA 회원 등록
매출액 35억 달성(6개월)
- 2002년 7월 벤처기업 인증 획득(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회원 등록
- 2002년 9월 벤처캐피탈로부터 자본유치 예정
- 2002년12월 자본금 32억원, 자산규모 110억원, 매출액 120억원 예상

⇒ ⇒ 처리가능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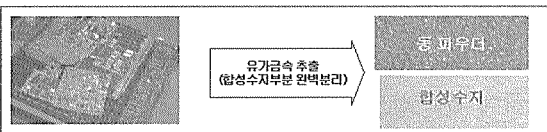


⇒ ⇒ 사업화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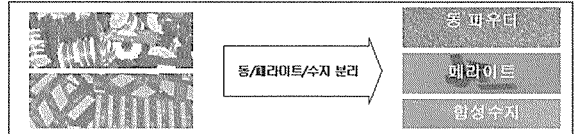
1) UBC(Used Beverage Can, 폐알루미늄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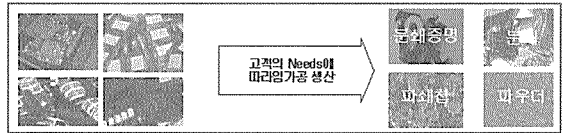
2) 폐PCB



3) EES(Electric & Electronic Scraps, 전자 스크랩)



4) 폐기물 재활용 임가공



⇒ ⇒ VISION 2005

Vision

